

《본초연의》에 수록된 黃蠟沈의 異名과 기원, 생성기전, 성상, 효능

하재진[#], 김인락^{*}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Synonyms, Origin, Formation mechanism, Description and Efficacy of Hwangnapchim in Elucidation of Materia Medica

Jae-Jin Ha[#], In-Rak Kim^{*}

Dep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Republic of Korea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x the synonyms, origin, formation mechanism, description, and efficacy of Hwangnapchim in Elucidation of Materia Medica.

Methods : Through searching histories and herbal classics, We categorized the contents, and compared with Aquilariae Lignum Resinatum.

Results : The synonyms of Hwangnapchim were classified by 3 categories : Napchimhyang-type, Ganamhyang-type and Ginamhyang-type. In early period, it was called by Napchimhyang-type, named after its description that was similar to beeswax. Afterward it was called by Ganamhyang-type or Ginamhyang-type, because of the name "Kynam" that was called by in its producing region. And there were records of producing region of Vietnam, Cambodia, and being from abroad, while those of Vietnam were most frequent. According to custom duties of Ming Dynasty, Hwangnapchim was 17.5 times as expensive as Agarwood. Hwangnapchim shared main producing region, original plant, and process of formation with Agarwood. Therefore, its original plant was *Aquilaria crassna*, but added honey during formation process. Hwangnapchim was classified 5 types according to its description, the highest quality was Yu-gyeol, resembled beeswax, and easily recovered if get a scar. Hwangnapchim had a fragrance at room temperature, a spicy flavor, and the efficacy of blocking urine and fece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howed that Vietnam was major producing area of Hwangnapchim, and that it shared same origin with Agarwood, but it had different description, efficacy, and higher prices because of being added honey during formation.

Key words : Elucidation of Materia Medica, Hwangnapchim, Synonym, Origin, Agarwood

I. 서 론

沈香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침향나무 *Aquilaria agallocha*의 수지가 침착된 수간목이라고 정의하였다¹⁾. 기원 종은 각국이 다른데 중국과 대만은 *A. sinensis*^{2,3)}, 베트남과 북한은 *A. agallocha*와 *A. sinensis*^{4,5)}, 일본은 *A. agallocha*

와 *A. crassna*, *A. malaccensis*, *A. sinensis*, *A. filaria*라고 규정하였다⁶⁾. 沈香이란 나무인데도 물에 가라앉고 향기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의에 沈香이 물에 가라앉는다고 규정한 나라는 없다.

성상향에서 베트남은 단단하고 치밀하며 무겁다하고, 중국은 비교적 단단하고 실하다, 일본은 단단하고 무겁다, 북한은 굳

*Corresponding author : In-Rak Kim, Dep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Republic of Korea.

· Tel : +82-51-890-3322 · E-mail : irkim@deu.ac.kr

#First author : Jae-Jin Ha, Dep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Republic of Korea.

· Tel : +82-51-890-3322 · E-mail : hjim5706@naver.com

· Received : 23 July 2021 · Revised : 19 August 2021 · Accepted : 25 September 2021

고 탄탄하며 무겁다, 대만은 굳고 단단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 규정이 없다. 열을 가하면 향기가 난다는 규정은 6개국 공정서에 모두 있다. 내부구조는 6개국 모두 *Aquilaria* 속 식물의 특징인 材內篩部가 있고 여기에 樹脂가 침착되어있다고 규정하였다.

뮌에탄올엑스 함량은 한국이 18.0% 이상이고, 중국과 대만은 10.0% 이상, 일본은 8.0% 이상이다. 수지가 많이 침착할 수록 무거워지므로 한국의 규정이 沈香의 원 뜻에 가장 근접한다.

한문으로 沈香을 가장 먼저 수록한 것은 100년대 초반에 나온 《交州異物志》인데 唐의 段公路가 쓴 《北戶錄》에 인용되었다. 지금의 베트남인 交州에 蜜香樹가 있는데 이 나무에 樹脂가 침착되어 단단하고 색깔이 진한 것 가운데 물에 가라앉는 것은 沈香, 안 가라앉는 것은 棧香, 뜨는 것은 槩香이라 하였다⁷⁾.

本草書로는 《名醫別錄》에 처음 수록되었는데 微溫, 療風水毒腫, 去惡氣라고 하였다⁸⁾. 《本草經集注》에서는 향을 즐기는 자가 애용하고 의학계는 惡核이나 毒腫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하였다⁸⁾. 《日華子本草》에 와서야 調中, 補五臟, 益精壯陽, 暖腰膝한다하여 보익약으로 사용하였다⁸⁾. 《唐本注》에는 침향나무의 꽃 색깔은 희다고 하였다⁸⁾.

《東醫寶鑑》은 湯液序例에서 물에 가라 앉는 것을 沈香, 뜨는 것을 煎香으로 구분하지만, 各論에서는 煎香은 없고, 대신 沈束香이 있다. 沈香은 내복약으로 사용하지만, 沈束香은 내복하지는 않았다. 沈束香이 든 처방은 4개인데 芙蓉香이나 聚仙香은 열을 가해 향을 맡고, 衣香은 옷상자 안에 넣어 벌레를 막고, 六香膏은 엑스제로 복용하고 찌꺼기는 열을 가해 향을 맡았다⁹⁾.

그런데 1116년에 출간된 《本草衍義》에는 沈香향에 黃蠟沈도 수록하고, 칼로 깎으면 스스로 말리고 씹으면 부드럽고 질긴 것을 黃蠟沈이라 하며 沈香보다도 구하기 더 어렵다고 하였다⁸⁾. 따라서 黃蠟沈이나 沈香은 물에 가라앉지만 둘은 구분된다. 하지만 아직 이것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따라서 黃蠟沈의 異名과 기원, 생성기전, 성상, 효능 등을 고전에서 고증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중국의 문헌으로는 宋元대의 《本草衍義》⁸⁾와 《島夷誌略》¹⁰⁾, 《宋會要》^{11,12)}, 明대의 《大明會典》¹³⁾과 《東西洋考》¹⁴⁾, 《明史》¹⁵⁾, 《物理小識》¹⁶⁾, 《本草乘雅半偈》¹⁷⁾, 《西洋蕃國誌》¹⁸⁾, 《西洋朝貢典錄》¹⁹⁾, 《星槎勝覽》²⁰⁾, 《偃曝談餘》²¹⁾, 《瀛涯勝覽》²²⁾, 《海外逸說》²³⁾, 《香乘》²⁴⁾, 《華夷續考》²⁴⁾, 《華夷花木鳥獸珍玩考》²⁵⁾, 清대의 《本草綱目拾遺》²⁶⁾과 《仁恕堂筆記》²⁷⁾, 《清史稿》²⁸⁾, 《香祖筆記》²⁹⁾, 《宦游筆記》³⁰⁾, 우리나라의 문헌으로는 조선의 《東醫寶鑑》⁹⁾과 《國朝五禮儀 序例》³¹⁾, 《朝鮮王朝實錄》³²⁻⁵⁾, 《靑莊館全書》³⁶⁾, 현대의 《한약재감별도감》³⁷⁾ 등에서 발췌한 《本草衍義》의 黃蠟沈과 내용이 같은 부분이다.

2. 방법

- 1) 黃蠟沈의 異名을 계통별로 분류하였다.
- 2) 黃蠟沈의 기원을 沈香과 비교하였다.
- 3) 黃蠟沈의 생성기전을 고전에 근거하여 연구하였다.
- 4) 黃蠟沈의 분류와 성상을 고전에 근거하여 연구하였다.
- 5) 黃蠟沈과 沈香의 기미와 효능을 비교하였다.
- 6) 黃蠟沈의 보관법에 근거하여 생성기전과의 관계를 밝혔다.
- 7) 黃蠟沈의 산지를 연구하였다.
- 8) 黃蠟沈이 송이나 명, 청에 수입된 기록에 근거하여 산지를 확인하였다.
- 9) 명의 관세술에 근거하여 黃蠟沈의 가격을 추정하였다.
- 10) 黃蠟沈과 土伽楠香을 비교하여 산지별 품질을 밝혔다.
- 11) 조선과 명의 黃蠟沈 무역을 연구하였다.

III. 결 과

1. 黃蠟沈의 異名

黃蠟沈의 異名은 3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납침향과 가남향, 기남향이다.

납침향류로는 臘沈香¹¹⁾과 蠟沈香¹²⁾, 黃蠟沈^{8,30)}이다.

가남향류로는 加南¹²⁾과 伽南^{14,15)}, 伽楠香^{13,23,26,30)}, 伽藍香^{18,22)}, 茄藍^{10,32-5)}, 迦蘭¹⁹⁾이다.

기남향류로는 琪楠香²⁰⁾과 棋楠香¹⁵⁾, 琪璫³⁰⁾, 奇南^{14,17,19,21,24,25)}, 奇楠香¹⁴⁾, 奇藍²⁴⁾이다.

臘沈香류는 성상이 蜜蠟을 닮고 물에 가라앉으면서 향기가 난다는 뜻이다. 가남향이나 기남향류는 베트남에서 이를 Kynam이라고 한데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³⁸⁾. 최초의 기록은 990년 《宋會要》蕃夷인데 淳化 1年 10월에 占星國에서 臘沈香 1근이 宋에 왔고¹¹⁾, 4년 뒤에는 蠟沈香이 왔다¹²⁾. 본초서로서 최초의 기록은 1116년의 《本草衍義》인데 黃蠟沈으로 수록되었다⁸⁾. 따라서 납침향류가 가남향류나 기남향류보다 앞선다. 처음에는 성상이 蜜蠟과 닮은 것에 근거하였으나, 이후에는 원산지인 베트남에서 이를 Kynam이라 하므로 이와 발음이 비슷한 글자를 택하였고, 이에 따라 약명의 한자는 다양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黃蠟沈의 기원

《海外逸說》에서는 伽楠과 沈香이 나란히 난다(伽楠, 與沈香並生) 하였다²³⁾.

《本草乘雅半偈》에서는 沈香과 奇南은 기원이 같지만 암수로 나누어 음양과 형질, 기미, 성질이 각각 다르다(而奇南一香, 原屬同類, 因樹分牝牡, 則陰陽形質, 臭味情性, 各各差別)하였다¹⁷⁾.

《宦遊筆記》에서는 黃蠟沈은 침향나무 가운데 좋은 것(沈香木之佳者, 黃蠟沈也)이라 하였다³⁰⁾.

《本草綱目拾遺》에서는 伽楠과 沈香은 근원은 같으나 음양으로 나눈다(伽楠本與沈香同類, 而分陰陽)고 하였다²⁶⁾.

따라서 黃蠟沈은 沈香과 기원종은 같으나 음양과 형질, 기미, 성질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3. 黃蠟沈의 생성 기전

黃蠟沈의 생성 기전은 《本草綱目拾遺》에 자세히 실렸는데 다음과 같다²⁶⁾.

침향나무의 가지에 구멍이 나서 속이 노출되면 침향나무는 바로 죽지만, 뿌리가 살아남으면 기운과 성질이 모두 따뜻하여 큰개미의 소굴이 된다. 큰개미가 石蜜을 먹고 돌아와 굴 안에 쌓아둔 뒤 세월이 흐르면 石蜜은 점점 침향나무에 침착하고, 침향나무가 石蜜기운을 점점 많이 받아, 응결되어 단단하고 윤기가 나면 黃蠟沈(가남향)이 된다. 凡香木之枝柯竅露者, 木立死而本存者, 氣性皆溫, 故爲大蟻所穴, 大蟻所食石蜜遺漬其中, 歲久漸浸, 木受石蜜氣多, 凝而堅潤, 則成伽南.

4. 黃蠟沈의 분류와 성상

黃蠟沈의 분류와 성상은 《本草綱目拾遺》에 자세히 실렸는데 5가지로 구분하며 품질이 우수한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²⁶⁾.

油結은 손으로 누르면 흠집이 나지만 손을 떼면 흠집이 아물고, 손가락으로 비비면 등갈게 말리지만 손가락을 놓으면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톱으로 쓸면 톱밥이 뭉쳐 덩어리가 된다.

綠結은 오리머리처럼 녹색이다.

生結은 침향나무가 아직 살아있고 꿀기운이 늘지 않았다.

糖結은 침향나무 지상부는 죽고 지하부만 살았으므로 꿀기운이 지하부로 모여 엷조각처럼 윤기가 난다.

虎斑金絲結은 생성된지 얼마 안 되어 침향나무 기운과 꿀기운이 서로 뭉치지 못하고 목부는 많고 향기와 맛은 적다. 掐之痕生, 釋之痕合, 按之可圓, 放之仍方, 鋸則細屑成團, 又名油結, 上之上也. 其色如鴨頭綠者, 名綠結. 香木未死, 蜜氣未老者, 謂之生結, 上也. 木死本存, 蜜氣膏於枯根, 潤若錫片者, 謂之糖結, 次也. 歲月既淺, 木蜜之氣未融, 木性多而香味少, 謂之虎斑金絲結, 又次也.

5. 黃蠟沈과 沈香의 기미와 효능

黃蠟沈과 沈香의 기미와 효능 구분은 《物理小識》과 《海外逸說》에 자세히 실렸는데 다음과 같다^{16,23)}.

黃蠟沈은 숫컷인데 맛이 아리고 혀에 달라 붙고 마비시키고, 향기가 잘 나고, 대소변을 막는다.

沈香은 암컷인데 맛이 쓰고, 상온에서는 향기가 잘 안 나고, 열을 가해야지만 향기가 강렬하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奇南牡也, 味辣沾舌麻木, 其香忽發, 而性能閉二便, 陽體陰用也. 沈牝也, 味苦性利, 其香含藏, 燒更芳烈, 陰體陽用也.

6. 黃蠟沈의 보관

黃蠟沈의 보관법은 《本草綱目拾遺》에 자세히 실렸는데 다음과 같다²⁶⁾.

黃蠟沈은 주석으로 만든 작은 상자에 보관하는데, 상자 가운데를 칸막이로 막고 칸막이에는 구멍을 많이 낸다. 칸막이 아래에는 꿀을 넣고 칸막이 위에는 黃蠟沈을 놓으면 꿀이 黃蠟沈을 훈증하여 윤기가 나게 한다.

다른 방법은 黃蠟沈 가루를 바르던가 가루에 파묻어 두면 이것이 황납향 향기를 되살린다. 다른 향은 안 된다. 藏者以錫爲匣, 中爲一隔而多竅, 蜜其下, 伽備其上, 使熏炙以爲滋潤, 又以伽備未養之, 他香未則不香, 以其本香返其魂.

이 방법은 《藥性考》에도 실렸는데 꿀과 함께 蘇合香도 사용하였다²⁶⁾.

7. 黃蠟沈의 산지

黃蠟沈의 산지는 크게 3곳인데 베트남과 캄보디아, 해외이다.

베트남으로 기록된 것은 990년 占城으로부터 臘沈香이 1斤은 것이 처음이다. 1409년 명의 영락제때 환관 정화가 이끈 선단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기록한 것으로 《西洋蕃國誌》와 《星槎勝覽》, 《瀛涯勝覽》이 있다^{18,20,22)}. 이에 따르면 黃蠟沈은 베트남에서도 어느 한 큰 산에서만 나고, 추장이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하므로, 일반인은 접근이 금지되고, 채취한 것은 모두 공납하고, 사사로이 黃蠟沈을 매매하다 발각되면 손이 잘렸고, 가격은 매우 높아 같은 무게의 銀과 같았다.

이 내용은 《明史》列傳 外國 占城¹⁵⁾과 《西洋朝貢典錄》¹⁹⁾, 《香乘》²⁴⁾, 《華夷續考》²⁴⁾에도 수록되어있다. 그리고 安南에서 난다고 한 것은 《清史稿》²⁸⁾와 조선의 기록인 《靑莊館全書》³⁶⁾이었다.

캄보디아로 기록된 것은 《仁恕堂筆記》²⁷⁾이었다.

해외로 기록된 것 가운데 《香乘》과 《本草綱目拾遺》는 海上諸山에서 난다 하고^{24,26)}, 《物理小識》은 선박으로 온 것이 우수하다 하며¹⁶⁾, 《海外逸說》은 해외에서 난다 하고²³⁾, 《宦遊筆記》는 粵東海上諸山에서 난다 하였다³⁰⁾.

8. 중국에 수입된 黃蠟沈

黃蠟沈이 송에 수입된 기록은 990년 10월과 994년 12월 4일, 1167년 10월 1일인데 990년 것은 1근이고 나머지는 수량미상이었다^{11,12)}.

명에 수입된 기록은 1387년인데 수량미상이었다¹⁵⁾.

청에 수입된 기록은 1732년인데 수량미상이었다²⁸⁾.

따라서 송과 명, 청에 온 黃蠟沈은 모두 베트남산이었다.

9. 黃蠟沈 가격

黃蠟沈의 가격은 《東西洋考》에 실린 1589년과 1615년의 관세액에서 추정할 수 있는데 관세액은 銀으로 표기되었다¹⁴⁾.

주요품목의 1589년 관세 비율은 黃蠟沈과 沈香, 束香, 氷片(中品)이 각각 28000과 1600, 210, 16000이고, 犀角(花白成器)과 木香, 鹿角이 각각 3400과 180, 14이었다. 따라서 가남향 관세는 沈香의 17.5배이고, 束香의 133.3배, 氷片(中品)의 1.75배, 鹿角의 2000배였다.

1615년 관세 비율은 黃蠟沈과 沈香, 束香, 氷片(中品)이 각

각 24200과 1380, 181, 13820이고, 犀角(花白成器)과 木香, 鹿角이 각각 2940과 155, 12이었다. 따라서 黃蠟沈 관세는 沈香의 17.5배, 束香의 133.7배, 氷片(中品)의 1.75배, 鹿角의 2016.7배였다.

10. 黃蠟沈과 土伽楠香

黃蠟沈 주산지는 베트남이었다. 중국이란 기록은 1702년 《香祖筆記》가 처음인데 土伽楠香이라 하였고, 품질은 베트남산 伽楠香이 더 우수하다(香樹生海南黎峒, 葉如冬青...有曰土伽楠, 與沉香並生, 沉香性堅, 伽楠性軟, 其氣上升, 故老人佩之, 少便溺, 產占城者佳)하였다²⁹⁾.

《本草綱目拾遺》에는 土伽楠香을 土伽楠香이라 하고, 伽楠香을 쪼개면 향기가 매우 은은하면서도 오래 가지만, 土伽楠香을 쪼개면 향기가 매우 자극적이고 오래 가지도 못한다(然以洋伽楠爲上, 產占城者, 剖之香甚輕微, 然久而不減, 產瓊者, 名土伽楠, 狀如油速, 剖之香特酷烈) 하였다²⁶⁾.

11. 조선의 黃蠟沈

명에서 조선으로 온 黃蠟沈은 茄藍香으로 기록되었는데 2건이었다³²⁻⁵⁾.

1406년 4월 19일 명의 司禮監太監 黃儼과 副使 韓帖木兒 등이 와서는 영락제가 돌아가신 先皇과 先皇妣의 은덕을 薦揚하는 祭典을 거행할 때 사용하려고 동불상을 부탁했다. 이 동불상은 제주도 法華寺의 彌陀三尊佛이며 元나라 良工이 주조한 것이다³²⁾.

다음날 20일에 태종이 韓帖木兒를 접견했는데 韓帖木兒는 영락제가 보내온 茄藍香間珊瑚帽珠 1부와 建康弓 2張, 綵段 1필, 錦線 1필, 金剛子 3貫, 椰瓢 8顆, 과일 여러가지를 바쳤다³³⁾.

7월 22일 명의 사신은 동불 3좌를 갖고 명으로 돌아갔다³⁴⁾.

1406년 12월 22일 동불 3좌에 대한 답례로 명의 內史 韓帖木兒·楊寧 등이 조선에 와서 태종께 바친 것은 다음과 같다³⁵⁾.

珊瑚間茄藍香帽珠 1串, 紵絲 30필, 熟絹 30필, 象牙 2隻, 犀角 2개, 《通鑑綱目》·《漢準四書衍義》·《大學衍義》각 1부, 片腦, 沈香, 束香, 檀香, 蘇合油, 白花蛇, 朱砂, 麝香, 附子, 金櫻子, 肉蓯蓉, 巴戟, 當歸, 乳香, 沒藥, 藿香, 零陵香, 甘松香 등 약재 18품목

이 내용은 《大明會典》에도 실렸다¹³⁾.

이에 대한 답례로 조선의 卞季良이 쓴 表箋이 《春亭集》卷九에 실렸는데 총 7개이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표의 제목은 謝賜珊瑚間茄藍香帽珠織金貯絲書籍藥材象牙犀角表이었다³⁹⁾.

帽珠는 왕의 冕旒冠에 다는 구슬인데 《國朝五禮儀 序例》에 실린 먼류관은 다음과 같았다(Figure 1)³¹⁾



Figure 1. Myunryukwan(冕旒冠) of Gukjooryeui Seorye(國朝五禮儀 序例)

12. 제1차 세계沈香대회의 黃蠟沈

2003년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1st international agarwood conference에 중국 요령성 대련 소재의 재덕무역 심기섭 대표가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했다. 이때 가져간 黃蠟沈을 베트남 관세청에서 확인하고 납으로 봉인하였고, 대회가 끝난 뒤에 반드시 한국으로 도로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베트남에 반입하였다. 이 黃蠟沈 사진이 《한약재감별도감》의 沈香항에 실렸다(Figure 2)³⁷⁾.



Figure 2. Hwangnapchim of Coloured Illustrations for Discrimination of Herbal Medicine

IV. 고찰

沈香은 6개국 공정서에 실렸는데 Aquilria속 식물인 것은 같지만 인정하는 종은 나라마다 다르다. 이 가운데 일본이 가장 포괄적이다. Aquilaria속 식물은 材內節部가 특징이다. 이 속의 나무는 비중이 가벼워 물에 뜨고 매우 연하다. 상해를 받으면 이를 치유하려고 재내사부는 傷害柔組織이 되어 벽이 두꺼워지고 높이와 너비가 거의 같게 되며, 수지를 분비하여 상해유 조직에 쌓고 일부는 導管에도 쌓는다⁴⁰⁾. 이러면 유조직과 도

관이 막히므로 상처는 치료되지만 영양분과 수분의 통로가 막혀 나무는 시들고 죽는다. 이렇게 쌓인 수지가 많아져 비중이 1을 초과하면 물에 가라앉으므로 沈香이라 한다. 이 沈香에 열을 가하면 꿀처럼 달콤한 향이 난다. 따라서 沈香은 나무인데도 물에 가라앉고 향기가 난다는 뜻이다.

沈香 주위에는 수지가 침착되어도 정도가 약하여 물에 뜨는 것이 있는데 이를 束香이나 黃熟香, 煎香, 棧香, 暫香 등이라 한다. 그리고 이 주위에는 수지가 전혀 침착 안 된 목부가 있다. 따라서 칼로 다듬으면 수지가 침착 안 된 부분과 침착이 적은 부분은 연하므로 깎여나가고 沈香부분만 단단하므로 그대로 남는다.

조직슬라이드를 제작하려고 칼로 얇게 자르면 침향나무는 재내사부가 연하므로 대부분 탈락된다. 沈香은 재내사부가 상해유조직으로 변하였고 단단하므로 자르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에 수지도 쌓였다.

수지가 쌓였어도 가라앉지 않는 것은 목부가 많으므로 《東醫寶鑑》에서는 내복약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태워서 향기를 맡거나 엑스제로 사용하였다⁹⁾.

학명 *Aquialria agallocha*는 인도의 동북단에서 채취한 것을 Roxburgh가 명명한 것인데⁴¹⁾ agallocha란 인도에서 沈香을 일컫는 말을 음차한 것이다. 《金光明最勝王經》卷第七에는 인도에서 나는 약재에 인도말음을 한자로 기록하였는데 沈香은 '惡揭嚕'라 하였다⁴²⁾. 베트남약전에는 *Aquilaria crassna*로 수록되었는데 이 학명은 1915 Pierre와 Lec.가 명명한 것이다⁴³⁾. 베트남에서는 沈香을 Crassna라고 한다. 따라서 약명 沈香은 성상에 근거하고, 학명 agallocha나 crassna는 인도나 베트남 산지에서 沈香을 부르는 이름에 근거하였다.

黃蠟沈은 본초서로는 《本草衍義》에 최초로 수록되었다. 黃蠟沈의 이명은 납침향류와 가남향류, 기남향류이고 3가지마다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성상에 근거하여 물에 가라앉고 밀랍처럼 생겼으므로 臘沈香이나 蠟沈香, 黃蠟沈이라 하였다. 이후에는 산지인 베트남에서 이를 Kynam이라 하므로 이 발음을 음차하여 가남향이나 기남향이라 하였고 지금도 이것이 널리 사용된다.

黃蠟沈의 산지는 베트남이라는 기록이 가장 많고, 캄보디아라는 기록과 海外라는 기록도 있다. 이는 沈香의 주산지와 일치한다⁴⁴⁻⁶⁾. 黃蠟沈이나 沈香은 기원종이 같고 주산지는 베트남이므로 기원종은 베트남의 *Aquilaria crassna*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는 인도네시아산 沈香이 수입되는데 이것은 재내사부가 없고 이 가운데 일부는 翼狀柔組織이 있으므로 gonystylus속으로 밝혀졌다⁴⁷⁾.

黃蠟沈의 가격은 《東西洋考》에 수록된 1589년과 1615년의 관세에서 추정할 수 있다. 黃蠟沈은 평균관세가만 실렸는데 28000이다. 하지만 氷片(자연산 龍腦)은 품질을 上中下로 구분하여 실었는데 1589년에는 각각 32000과 16000, 8000이므로 한 등급이 올라가면 관세는 2배가 된다. 따라서 黃蠟沈 평균관세 28000을 中品으로 보면 上品은 이것의 2배인 56000이고 상중하품 어느 경우나 黃蠟沈이 氷片보다 1.75배 임을 알 수 있고, 이에따라 관세는 黃蠟沈이 가장 비쌌음도 알 수 있다.

생성 기전은 黃蠟沈과 沈香이 같지만 黃蠟沈은 여기에 더하여 큰개미가 꿀을 쌓아놓았고 이 꿀이 나무와 반응하여 속

성되었다는 점이 다르다²⁶⁾. 이에 따라 黃蠟沈은 밀랍처럼 부드럽고 윤기가 난다. 이는 침향나무를 蜜香樹라 한 것이나 黃蠟沈을 꿀이 담긴 병에 보관하는 것과 관련있다.

黃蠟沈의 분류와 성상은 《本草綱目拾遺》가 자세한데 품질이 우수한 순으로 油結과 綠結, 生結, 糖結, 虎斑金絲結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油結의 특징을 다른 문헌에는 일부분씩 서술되었다. 《海外逸說》에는 기름이 있어 손가락으로 긁으면 송곳으로 모래밭에 그림 그리는 것 같고, 씹으면 치아에 붙는다 하고²³⁾, 《東西洋考》에는 손톱으로 찌르면 손톱이 들어가고 손톱을 빼면 상처가 아물어 흔적이 사라진다 하고¹⁴⁾, 《香乘》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기름이 나오고 부드럽고 질긴 것이 최상품이다 하고²⁴⁾, 《本草衍義》에는 깎으면 스스로 말리고, 씹으면 부드럽고 질기다 하고⁸⁾, 《物理小識》에는 톱질하면 톱밥이 뭉치고, 혀에 들러붙고 혀를 마비시킨다 하고¹⁶⁾, 《本草乘雅半偈》에는 혀에 들러붙고 마비시킨다 하였다¹⁷⁾.

黃蠟沈과 沈香은 기미와 효능이 달랐다. 沈香은 맛이 쓰고 상온에서 향기가 그다지 없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지만, 黃蠟沈은 이와는 달리 맛이 맵고 아리고, 향기가 잘 나고 대소변을 그치게 한다. 《宦遊筆記》에서는 黃蠟沈이 沈香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 했는데³⁰⁾ 두 약은 효능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불가하다. 따라서 黃蠟沈은 수지가 침착될 때 꿀까지 침착되어 열을 가하면 향기가 沈香보다 더 달콤하고 이에 따라 마음을 더 편하게 한다고 해석된다.

1702년 《香祖筆記》에 처음으로 중국 해남도에 土伽楠香이 있다 했지만 가남향(黃蠟沈)보다 향기가 자극적이고 오래 지속하지도 못하였다하였다. 따라서 土伽楠香은 가남향 대용이 될 수 없다.

조선에 黃蠟沈(가남향)이 온 기록은 2건인데 모두 1406년 이고 태종의 면류관에 다는 구슬이었다. 면류관은 왕의 정복인 면복과 함께 착용하는데, 명에서 조선에 처음 온 것은 이보다 3년 앞 선 1403년 10월 27일이다. 이때 함께 온 구슬은 五色珊瑚玉旒珠였다⁴⁸⁾.

면류관에는 구슬을 펜 줄이 앞과 뒤에 각각 9줄씩 있고 1줄에 구슬이 9개씩이고, 양 옆에도 각각 1줄씩 있지만 1줄에 구슬이 2개씩이다. 따라서 구슬은 총 166개이다. 1줄에 구슬 9개를 꿰는 순서는 색깔로 정하는데 紅白蒼黃黑이다⁴⁹⁾. 1403년에 온 구슬은 紅白蒼黃이 각 36개이고 黑이 18개, 靑白膽珠가 4개였다⁴⁸⁾.

3년 뒤인 1406년 4월 19일에는 명의 영락제가 동불상을 부탁하면서 면류관에 다는 茄藍香間珊瑚帽珠 1부를 가져왔고³²⁾, 7월 22일에 동불상 3좌를 가져왔고³⁴⁾, 12월에는 동불상에 대한 답례로 珊瑚間茄藍香帽珠 1串을 가져왔다³⁵⁾. 동불상은 제주도 法華寺의 彌陀三尊佛이며 元나라때 良工이 주조한 것인데, 영락제는 돌아가신 선황과 선황비를 기리는 제전에 사용하려고 부탁한 것이다.

茄藍香間珊瑚帽珠는 가남향으로 청적황백색 구슬을 만들고 산호로 흑색 구슬을 만들면 가남향구슬이 144개이고, 산호구슬이 18개다. 珊瑚間茄藍香帽珠는 이와는 반대이다. 따라서 동불을 부탁할 때 온 것이 黃蠟沈구슬이 가장 많고 고급이었다.

면류관은 너비 8촌이고 여기에 줄을 9개 달므로 각 줄의 간격은 1촌(3.033cm)이다. 《國朝五禮儀 序例》吉禮 祭服圖說에 면류관 그림이 있는데 구슬이 달린 줄과 줄 사이 간격이 구슬

지름의 약 2배이므로 구슬 지름은 1cm, 간격은 2cm로 추정할 수 있다.

지름 1cm인 가남향 구슬 144개나 18개를 만들려면 최소한 한 변이 1cm인 정육면체 144개나 18개가 필요하고, 비중을 1로 보면 144g이나 18g이다. 하지만 공 모양으로 깎았을 때 겉으로 드러난 목부가 없어야하고 색깔과 품질이 같아야 하므로 실제로는 144g이나 18g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동불 3좌에 대한 답례로 면류관의 帽珠가 올 때 함께 온 약재 18품목은 片腦와 沈香, 東香, 檀香, 蘇合油, 白花蛇, 朱砂, 麝香, 附子, 金櫻子, 肉蓯蓉, 巴戟, 當歸, 乳香, 沒藥, 藿香, 零陵香, 甘松香이었다. 이 약은 조선에는 없는 약이었고 이 가운데 片腦(자연산 龍腦)나 沈香이 가장 귀하였다. 하지만 면류관에 다는 黃蠟沈 구슬은 자연산 龍腦나 沈香보다도 더 귀하였다.

V. 결 론

《本草衍義》에 수록된 黃蠟沈의 異名과 기원 등을 고전에 근거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黃蠟沈의 異名은 납침향과 가남향, 기남향류로 분류된다. 초기에는 성상을 따라 납침향류로 불렀으나, 후기에는 원산지의 이름을 따라 가남향이나 기남향류로 불렀다.
2. 黃蠟沈은 기원종과 생성과정, 물에 가라 앉는 것 등이 沈香과 같지만 생성과정에 꿀이 첨가되었다.
3. 黃蠟沈의 주산지는 베트남이었다.
4. 黃蠟沈은 기원종과 생성과정, 주산지가 沈香과 같으므로 기원종은 *Aquilaria crassna*였다.
5. 관세는 黃蠟沈이 가장 비쌌는데 沈香의 17.5배이고 東香의 133.3배였다.
6. 黃蠟沈은 품질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하는데 油結이 최상품이고 蜜蠟과 닮았으며 상처가 나더라도 쉽게 복원되었다.
7. 黃蠟沈은 향기가 잘 나고, 맛은 맵고, 대소변을 막으므로 沈香과는 효능이 달랐다.

이상의 결과로 黃蠟沈은 沈香과는 기원종과 산지, 물에 가라 앉는 것 등이 같지만 생성될 때 꿀이 첨가되어 성상과 효능이 다르고 가격이 더 비쌌음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1. The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otification 2020-73. The Korean Herbal Pharmacopeia 2020, 412. Available from : URL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C%80%ED%95%9C%EB%AF%BC%EA%B5%AD%EC%95%BD%EC%A0%84%EC%99%B8%ED%95%9C%EC%95%BD\(%EC%83%9D%EC%95%BD\)%EA%B7%9C%EA%B2%A9%EC%A7%91/](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C%80%ED%95%9C%EB%AF%BC%EA%B5%AD%EC%95%BD%EC%A0%84%EC%99%B8%ED%95%9C%EC%95%BD(%EC%83%9D%EC%95%BD)%EA%B7%9C%EA%B2%A9%EC%A7%91/).
2. The Pharmacopoeia Commiss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Pharmacopoeia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Beijing : China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2015 : 185-6.
3. Taiwan Herbal Pharmacopoeia 3rd Edition Committee. Taiwan Herbal Pharmacopoeia 3rd edition, Taipei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 155-6.
4. Vietnamese Pharmacopoeia Commission. Vietnamese Pharmacopoeia 3rd rev. ed, English Version. Hanoi : Tien Bo Printing Company, 2005 : 417-8.
5. Kim SK, Kim SH, Lee KA, Moon CN, Kim KC. The Pharmacopoeia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8th edition. Pyongyang : Science and Encyclopedia Publications, 2018 : 534.
6.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The Japanese standards for non-Pharmacopoeial crude drugs. Tokyo : Yakuji Nippo, 2020 : 51.
7. Duan GL, Beihulu 3. Wenyuangao Sikuquanshu, Shibu, Daililei. Taiwan : Taiwan Shangwu Yinshugwan, 1994 : 589-57.
8. Tang SW. ChongxiuzhengheJingshizhengleidaguanbencaio. Beijing :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0 : 307-8.
9. Heo J. Dongyueibogam. Seoul : Beob-in Munhwasa, 2012 : 1629, 1635, 2099.
10. Wang DY. Daoyizhilve. Available from : URL : <https://zh.wikisource.org/wiki/%E5%B3%B6%E5%A4%B7%E8%AA%8C%E7%95%A5>.
11. Yang C. Songhuiyao, Volume 235 Fanyi. Available from : URL : <http://www.archive.org/details/02087747.cn>.
12. Yang C. Songhuiyao, Volume 238 Lidaichaogong. Available from : URL : <https://archive.org/details/02087976.cn/page/n22/mode/2up>.
13. Xu P. Daming Huidian, Volume 111 Geici, 2 Waiyi Shang, Chaoxianguo. Available from : URL :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232497>.
14. Zhang B. Dongxiyangkao, Volume 7 Liuxiang. Wenyuangao Sikuquanshu, Shibu, Dililei. Available from : URL : [https://zh.wikisource.org/wiki/%E6%9D%B1%E8%A5%BF%E6%B4%8B%E8%80%83_\(%E5%9B%9B%E5%BA%AB%E5%85%A8%E6%9B%B8%E6%9C%AC\)/%E5%85%A8%E8%A6%BD](https://zh.wikisource.org/wiki/%E6%9D%B1%E8%A5%BF%E6%B4%8B%E8%80%83_(%E5%9B%9B%E5%BA%AB%E5%85%A8%E6%9B%B8%E6%9C%AC)/%E5%85%A8%E8%A6%BD).
15. Zhang TY. The History of Ming Volume 324 Liezhuan, 212 Foreign Country 5. Available from : URL :

- <http://www.tl5000.com/24shi/ms/index.htm>.
16. Fang YZ. Wulixiaoshi, Volume 8, Xianglei, Wenyuangao Sikuquanshu, Zibu, Zajialei. Available from : URL : [https://zh.wikisource.org/wiki/%E7%89%A9%E7%90%86%E5%B0%8F%E8%AD%98_\(%E5%9B%9B%E5%BA%AB%E5%85%A8%E6%9B%B8%E6%9C%AC\)/%E5%8D%B708](https://zh.wikisource.org/wiki/%E7%89%A9%E7%90%86%E5%B0%8F%E8%AD%98_(%E5%9B%9B%E5%BA%AB%E5%85%A8%E6%9B%B8%E6%9C%AC)/%E5%8D%B708).
 17. Lu ZY. Bencao Chengyabanji, Volume 8 Bielu Shangpin, Wenyuangao Sikuquanshu, Zibu, Yijialei. Available from : URL : [https://zh.wikisource.org/wiki/%E6%9C%AC%E8%8D%89%E4%B9%98%E9%9B%85%E5%8D%8A%E5%81%88_\(%E5%9B%9B%E5%BA%AB%E5%85%A8%E6%9B%B8%E6%9C%AC\)/%E5%85%A8%E8%A6%BD](https://zh.wikisource.org/wiki/%E6%9C%AC%E8%8D%89%E4%B9%98%E9%9B%85%E5%8D%8A%E5%81%88_(%E5%9B%9B%E5%BA%AB%E5%85%A8%E6%9B%B8%E6%9C%AC)/%E5%85%A8%E8%A6%BD).
 18. Gong Z. Xiyang Fanguozhi, Zhufanguoming, Zhanchengguo. Available from : URL : <https://zh.wikisource.org/zh-hant/%E8%A5%BF%E6%B4%8B%E7%95%AA%E5%9C%8B%E8%AA%8C>.
 19. Huang SC. Xiyang Chaogong Dianlu. Beijing : Zhinghua Book Company, 1982 : 1-13.
 20. Fei X. Xingcha Shenglan, Volume 1 Qianji, Zhanchengguo. Available from : URL : <https://zh.wikisource.org/wiki/%E6%98%9F%E6%A7%8E%E5%8B%9D%E8%A6%BD/%E5%8D%B71>.
 21. Chen JR. Yanputanyu, Xiajuan. Available from : URL : <https://curiosity.lib.harvard.edu/chinese-rare-books/catalog/49-990079207370203941>.
 22. Ma H. Yingya Shenglan. Available from : URL : <http://toyoshi.lit.nagoya-u.ac.jp/maruha/kanseki/yingyashenglan1.html>.
 23. Chen Rang. Haiwaiyishuo, Bencaogangmu Shiyi, Volume 6 Mubu. Available from : URL : <https://archive.org/details/02093043.cn/page/n82/mode/2up>.
 24. Zhou JZ. Xiangcheng, Volume 5, Chenshuixiang, Wenyuangao Sikuquanshu, Zibu, Pululei. Available from : URL : [https://zh.wikisource.org/wiki/%E9%A6%99%E4%B9%98_\(%E5%9B%9B%E5%BA%AB%E5%85%A8%E6%9B%B8%E6%9C%AC\)/%E5%85%A8%E8%A6%BD](https://zh.wikisource.org/wiki/%E9%A6%99%E4%B9%98_(%E5%9B%9B%E5%BA%AB%E5%85%A8%E6%9B%B8%E6%9C%AC)/%E5%85%A8%E8%A6%BD).
 25. Shen MG. Huayihuanmiaoshouzhewankao, Volume 11, Xukao. Available from : URL : https://www.wul.waseda.ac.jp/kotenseki/html/ni01/ni01_00203/.
 26. Zhao XM. Bencaogangmu Shiyi, Volume 6 Mubu. Available from : URL : <https://archive.org/details/02093043.cn/page/n82/mode/2up>.
 27. Li SH. Congshu Jicheng Xubian, Volume 215, Taipei : Xinwenfeng Chubangongsi, 1989 : 468.
 28. Zhao EX. Qingshigao, Volume 323 Liezhuan, 110 Emidachuan. Available from : URL : <http://www.tl5000.com/24shi/qsg/index.htm>.
 29. Wang SZ. Xiangzu Biji, Volume 8, Wenyuangao Sikuquanshu, Zibu, Zajialei. Available from : URL : [https://zh.wikisource.org/wiki/%E9%A6%99%E7%A5%96%E7%AD%86%E8%A8%98_\(%E5%9B%9B%E5%BA%AB%E5%85%A8%E6%9B%B8%E6%9C%AC\)/%E5%85%A8%E8%A6%BD](https://zh.wikisource.org/wiki/%E9%A6%99%E7%A5%96%E7%AD%86%E8%A8%98_(%E5%9B%9B%E5%BA%AB%E5%85%A8%E6%9B%B8%E6%9C%AC)/%E5%85%A8%E8%A6%BD).
 30. Nalan CA. Huanyou Biji, Bencaogangmu Shiyi, Volume 6 Mubu. Available from : URL : <https://archive.org/details/02093043.cn/page/n82/mode/2up>.
 31. Shin SJ, Kang HM, Jung C. Gukjooryeui Seorye, Volume 1 Gil Rye, Jebokdoseol, Jeonha Myeonok. Available from : URL : http://db.history.go.kr/law/item/level.do?levelId=jlawb_230r_0010_0010_0200_0010.
 32.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04,19,1406 (TaeJong6). Available from : URL :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604019_001.
 33.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04,20,1406(TaeJong6). Available from : URL :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604020_001.
 34.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07,22,1406(TaeJong6). Available from : URL :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607022_002.
 35.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12,22,1406(TaeJong6). Available from : URL :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612022_001.
 36. Lee DM. ChengJangGwan Jeonseo, Volume 65 Cheonglyeonggukji2, Chapter 7 Yiguk, An-nam. Available from : URL : 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grpId=&itemId=MO&gubun=book&depth=3&cate1=Z&cate2=&dataGubun=%EA%B6%8C%EC%B0%A8&dataId=ITKC_MO_0577A_0650.
 37. Kim CM. Coloured Illustrations for Discrimination of Herbal Medicine, Seoul : Academy Book, 2014 : 442-3.
 38. Jang HR. Agarwood : The fragrance of Heaven. Seoul : Book & Wood, 2015 : 128.
 39. Byun GL. Chun-Jeong-Jib, Volume 9. Available from : URL :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4&cate1=Z&cate2=&dataGubun=%EB%AC%B8%EC%B2%B4&dataId=ITKC_BT_0043A_0100_010.
 40. Kim IR, Park SJ. Anatomical Features of Agarwood1s Xylen. J. Kor. Soc. Herbal Medicine, 2005 ; 20(3) : 9-18.
 41. Roxburgh W. Hortus Bengalensis, or a Catalogue of the Plants Growing in the Honourable East India Company's Botanical Garden at Calcutta, Serampore : Serampore Mission Press, 1814 : 33. Available from : URL : <https://www.ipni.org/p/969-2>.
 42. Yi J. Sovereign Kings of the Light Sūtra 7.

Available from : URL : https://kabc.dongguk.edu/content/view?dataId=ABC_IT_K0127_T_007&gisaNum=0054T&solrQ=query%24%E6%83%A1%E6%8F%AD%E5%9A%95%3Bsotr_sortField%24%3Bsotr_sortOrder%24%3Bsotr_secId%24ABC_IT_GT%3Bsotr_toalCount%241%3Bsotr_curPos%240%3Bsotr_solrId%24ABC_IT_K0127_T_007_0054.

43. Lecomte H. Sur les graines des Thyméléacées, Bulletin de la Société botanique de France, 1915 ; 61 : 411. Available from : URL : <https://www.biodiversitylibrary.org/page/343913#page/464/mode/1up>.
44. Kim KM, Kim IR. A Research on the origin of Aquilariae Lignum based on its production area and trading status in history. Kor J Herbology, 2011 ; 26(4) : 163–8.
45. Park SJ, Kim IR. A Philological study on Submersion Property of Aquilariae Lignum, Kor J Herbology, 2012 ; 27(4) : 25–31.
46. Kim IR. The Scientific Name of Aquilariae Lignum based on distribution of Aquilaria spp. Kor J Herbology, 2013 ; 28(5) : 13–9.
47. Kim IR, Park BS. A Study on the Actual Origin Species of Aquilaria malaccensis Imported from Indonesia. Kor J Herbology, 2011 ; 26(1) : 97–101.
48.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10,27,1403(TaeJong3). Available from : URL :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310027_001.
49. KKS. Encyclopdedia of Korean Folk Culture. Available from : URL :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6983>.